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5. 9. 16.(화)

조달청, 추석 전후 원자재 공급 확대...민생경제 지원

추석 전후 비축물자 방출 한도를 한시적(9.17.~10.14.)으로 20% 확대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간 비축물자 방출 물량을 평소보다 20% 확대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.

이번 비축물자 방출 한도 확대는 추석 전후인 9월 17일 부터 10월 14일 까지 4주 동안 이뤄지며, 업체별 한도량 및 주간 판매한도량을 각각 20% 확대하여 방출한다.

이에 따라 한 달간 공급되는 원자재는 알루미늄의 경우 5,760톤으로, 구리 3,600톤, 납 3,840톤, 아연 1,440톤, 주석 288톤, 니켈 216톤으로 총 15,144톤으로 늘어나게 된다.

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“이번 추석을 맞아 선제적으로 원자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 제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	책임자	과 장	임현억 (042-724-7183)
		담당자	사무관	이선아 (042-724-7532)